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와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

권오현, 이재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A Basic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Lifesty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Students

Oh Hyeon Kwon, Jae Hyok Le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2, 2019

Revised: November 28, 2019

Accepted: December 22, 2019

Correspondence to

Jae Hyok Le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Bongbang-dong, Chungju,
Korea.

Tel: +82-43-841-1736

Fax: +82-43-856-6295

E-mail: yuean69@hanmail.net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my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lifesty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grade point averages of 73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llected. Surveys including lifestyle and psychological properties of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nducted.

Results: In the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survey, the scores of the top, medium, and bottom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t least one group, and the score of the bottom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op group. In the SES (Self-Esteem Scale) survey, the scores of the top, middle, and bottom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 least one group, and the scores of the top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medium and bottom groups.

Conclusions: Some lifesty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students were cor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Thus,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s of Korean medical students.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SES, MBI-SS, Korean medical students.

I. 서론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은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유능한 한의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제도의 시행과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등의 실습위주 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변혁기를 맞고 있다¹⁾. 이러한 한의과대학 교육 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의학 지식을 활용하고 체화시키도록 하는 학습자 역량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¹⁾. 이처럼 새로운 교육 환경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의대생의 학업 및 생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식사, 수면 등의 기본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장학 및 학사관리 등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²⁾. 특히 한의대생과 같은 의학 계열 학생들은 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계열 대학생들에 비하여 더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며, 보다 더 잦은 시험을 경험하고, 때때로 유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³⁾. 대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관 등이 모여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며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잘 이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²⁾. 대학생활의 학업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게 된다⁴⁾.

의학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³⁾은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와 시험불안은 부적 상관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MMPI-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II)를 활용해 의대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노⁵⁾는 의대생의 학업성취도가 부정적 정서성 및 신경증 척도, 내향성 척도, 히스테리 척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이⁶⁾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학 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타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나^{3,5,6)}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적었다. 타 의학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도 우울, 불안, 자존감 등의 개별적 심리적인 요인들에 치중한 연구들이 대부분^{5,6)}이었고 수면 패턴, 알코올 및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자존감 등과 같은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상황에서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6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해당년도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 74명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모집

병원 및 학과 게시판에 연구 내용을 고지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연구 설명문을 배포한 후 자의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취약한 대상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별도 공간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에 연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 도중에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제외 기준

설문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 또는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설문 도중 철회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검사에는 동의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철회 의사를 밝힌 1명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 도구

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검사 시행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직전학기이면서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본과 3학년 2학기의 평균평점을 학업성취도로 정의하였다.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각 해당년도의 본과 4학년 학생들 중 평점평균 상위 1/3, 중위 1/3, 하위 1/3의 학생들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세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수면 관련 연구 도구

일주기 유형의 구별을 위해 Smith 등⁷⁾이 개발한 CSM (Composite Scale of Morningness)을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점에서 5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 등⁸⁾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 CSM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간 수면 과다를 평가를 위해 SSS (Stanford Sleepness Scale)⁹⁾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 중독 관련 연구 도구

알코올 중독 관련 연구 도구로서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¹⁰⁾을 사용하였다. AUDIT은 음주의 양적 측면을 고려한 검사로 0~7점은 정상, 8~11점은 주의 요함, 12~19점은 문제음주, 20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평가한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 도구로는 S-Scal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¹¹⁾를 사용하였다. S-Scale은 총점 40점 이하의 일반 사용자군, 41~43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4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평가하는 검사이며 4가지 중독 요인별 문항군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4) 학업 관련 연구 도구

시험 불안을 평가하는 검사로 K-RTA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K-RTA는 Benson과 El-Zahhar¹²⁾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¹³⁾가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높은 시험불안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 소진을 평가하는 검사로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사용하였다. MBI-SS는 Schaufeli¹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 등¹⁵⁾이 번안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 소진 정도를 의미한다.

5)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도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검사로 PWI-S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그리고 PSS (Percei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PWI-SF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검사로 장 등¹⁶⁾이 개발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8점 이하는 건강군, 9점~27점은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은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PSS는 Cohen 등¹⁷⁾이 개발한 검사로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10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¹⁸⁾가 번역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6)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 도구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Rosenberg¹⁹⁾가 개발한 SES (Self-Esteem Scale)을 이¹⁸⁾가 번역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10문항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7) 우울 관련 연구 도구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BDI는 21 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설문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등²⁰⁾이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0~13점은 약간의 우울, 14~19점은 경미한 우울, 20~28점은 중등도의 우울, 29~63점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 CES-D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증 선별 목적으로 개발된 설문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과 이²¹⁾가 번역한 K-CES-D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8) 불안 관련 연구 도구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Spielberger²²⁾가 개발한 STAI-X-1, 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1, 2)를 김²³⁾이 번역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STAI-X-1은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상태불안을 평가하는 설문검사이다. 52~56점은 약간 높은 상태불안, 57~61점은 상당히 높은 상태불안, 62점 이상은 매우 높은 상태불안으로 평가한다. STAI-X-2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특성불안을 평가하는 설문검사이다. 54~58점은 약간 높은 특성불안, 59~63은 상당히 높은 특성불안, 64점 이상은 매우 높은 특성불안으로 평가한다.

4.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IBM, USA)을 사용하여 수집된 검사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수면 관련 척도, 학업 관련 척도, 중독 관련 척도 등 다양한 결과값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교차분석을, 학업성취도와 여러 설문검사 결과와의 비교에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5. 윤리적 검토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승인(승인번호: IRB 1902-01)을 받고 IRB 절차에 따라 연구를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6명(63.0%), 여자가 27명(37.0%)이었고, 연령 분포는 20~24세가 46명(63.0%),

25~29세가 22명(30.1%), 30세 이상이 5명(6.8%)이었다 (Table 1).

2.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분포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분포는 첫 번째 집단인 상위 집단이 24명(32.9%), 중위 집단이 24명(32.9%), 하위 집단이 25명(34.2%)이었다(Table 2).

3. 학업성취도와 수면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수면 관련 척도인 CSM, SSS 척도와 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CSM은 중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SSS는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4. 학업성취도와 중독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중독 관련 척도인 AUDIT, S-Scale 척도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AUDIT은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S-Scale은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고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5. 학업성취도와 학업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K-RTA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

Table 2. Distributi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Subjects

Group	Academic Achievement	N (%)
1 Top	3.5600±.24018	24 (32.9)
2 Medium	2.9242±.15662	24 (32.9)
3 Bottom	2.4712±.21504	25 (34.2)
Total	2.9781±.49471	73 (100)

Academic achievement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Subjects

Age	Male	Female	p
20~24	27 (58.7)	19 (41.3)	.528
25~29	16 (72.7)	6 (27.3)	
≥30	3 (60.0)	2 (40.0)	
Total	46 (63.0)	27 (37.0)	

All values are N(%).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leep Related Scales

Sleep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CSM	26.96±7.037	31.04±8.740	29.04±7.673	.204
SSS	3.21±1.250	2.83±1.167	2.60±.500	.153

CSM: Composite Scale for Morningness, SSS: Stanford Sleepiness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CSM) and Kruskal-Wallis Test(SSS).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업성취도와 MBI-SS와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었으며 S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Table 5).

6. 학업성취도와 스트레스 관련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스트레스 관련 척도인 PWI-SF, PSS 척도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PWI-SF에서는 중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PSS에서는 하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6).

7.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인 SES와의 ANOVA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상위 집단이 중위 및 하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7).

8. 학업성취도와 우울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우울 척도인 CES-D, BDI 척도와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척도 모두에서 중위 집단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 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8).

Table 4.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ddiction Related Scales

Addiction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AUDIT	10.46±8.005	10.42±5.602	9.04±6.736	.711
S-Scale	31.63±6.851	34.92±8.140	36.56±8.058	.082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Scal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Table 5.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udy Related Scales

Study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Post-hoc
K-RTA	24.67±3.583	27.38±9.695	27.88±7.876	.124	
MBI-SS	40.17±10.366	42.92±6.896	47.00±9.518	.034*	1<3

K-RTA: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Post-hoc result was calculated by Scheffe test.

9. 학업성취도와 불안 척도의 비교

학업성취도와 불안 척도인 STAI-X-1, STAI-X-2 척도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두 척도 모두에서 중위 집단의 점수가 높았으며 상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9).

IV. 고찰

대학생 시기는 학문을 탐구함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며 많은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²⁾. 따라서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대학 이후의 삶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한 전문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²⁾.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학습 내용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성적 부진 및 유급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³⁾. 학생들의 부진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특히 한의과대학에서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의 시행과 맞물려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등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¹⁾.

학업 성취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생 차원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Table 6.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ress Related Scales

Stress Related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PWI-SF	17.96±8.564	23.42±8.677	21.20±7.394	.076
PSS	15.33±5.836	16.04±4.582	17.20±7.450	.558

PWI-S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PSS: Perceived Stress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Table 7.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elf-Esteem Scale

Scale	Group 1	Group 2	Group 3	p	Post-hoc
SES	32.54±3.501	29.17±5.189	30.04±4.148	.024*	1 > 2,3

SES: Self-esteem Scale.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Post-hoc result was calculated by Scheffe test.
 *p < 0.05

Table 8.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Depression Scales

Depression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CES-D	29.79±8.012	32.54±11.022	31.08±9.032	.787
BDI	5.79±5.595	9.67±6.926	8.88±7.753	.102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values were calculated by Kruskal-Wallis test.

Table 9.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nxiety Scales

Anxiety Scales	Group 1	Group 2	Group 3	p
STAI-X-1	42.04±11.087	43.88±9.896	42.40±10.079	.810
STAI-X-2	41.96±5.328	46.13±8.614	46.04±8.142	.050

STAI-X-1: State-Trait Anxiety Inventory-1, STAI-X-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2.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²⁴⁻²⁶. 일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이 낮았으며²⁴, 내적 동기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5,26}. 의료 계열 학생들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일 수록 시험불안³,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내향성, 히스테리성, 우울 경향이 높으며⁵ 자아존중감이 낮다는⁶ 연구 결과가 있었다. 기존에 학업성취도와 학생들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심리 요인 위주였으며 또한 한의대생에 관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대생의 생활 양식 특성들을 포함한 여러 심리 특성들과 학업성취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CSM을 보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순으로 저녁형에 가까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주간 졸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SSS에서는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순으로 주간 졸음의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중위 및 하위 집단의 학생들보다 일과 후에 밤 늦게까지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서 저녁형의 일주기 유형을 가지며, 또한 주간에 졸음 정도가 더 높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의대생일수록 아침형의 일주기유형을 가진다는 Hyder의 연구²⁷ 및 성적이 우수한 의대생일수록 주간 졸음이 적다는 Rodrigues의 연구²⁸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국가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조건 및 학습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AUDIT에서는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순으로 알코올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성적이 좋은 대학생일수록 음주량이 적다는 Walid의 연구²⁹와는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간 점수 차이가 있지는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S-Scale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스마트폰 과사용이 어느정도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간호대생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한의 연구³⁰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과대학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험불안을 나타내는 K-RTA를 보면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시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의대생의 시험불안과 학업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윤의 연구³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업 소진 정도를 나타내는 MBI-SS에서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하위 집단은 상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학업 소진 정도를 보였다. 하위 집단에게 있어서는 수업 및 시험, 유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위 집단에 비해 과중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의대생의 학업 소진 정도가 학업성취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Gómez의 연구³¹와는 차이가 있는데, 연구대상자의 집단의 학년과 국가 및 대학의 특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PWI-SF에서는

중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PSS에서는 하위 집단,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순으로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는 주의 연구³²⁾와 일치하며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연구들^{26,33)}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을 나타내는 SES에서는 상위 집단이 중위 및 하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가 스스로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만들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들^{6,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CES-D와 BDI 모두 중위 집단이 가장 우울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에서 상위 집단보다 하위 집단이 더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우울경향이 있다는 연구들^{5,6,33)}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상태 불안을 나타내는 STAI-X-1과 특성 불안을 나타내는 STAI-X-2 모두에서 중위, 하위, 상위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상태불안이 높다는 연구³³⁾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울, 불안을 나타내는 설문 모두에서 중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집단 특성상 상위 집단으로 이동하고 싶은 갈망과 하위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양한 생활 양식 특성 및 심리 특성들 중 한의대생의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학업 소진 정도 및 자존감의 두 가지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한의과대학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한의대생이라는 집단은 미래에 의료인이 될 특수한 집단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성취도와 여러 특성들과의 관련성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수가 73명으로 학업성취도와 여러 특성들간의 관계를 밝히기에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단일 학기 성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전체 학년의 성적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학업성취도와 한의대생의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설문검사서에서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점수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 하위 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위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SES (Self-Esteem Scale) 설문검사서에서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점수가 적어도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 상위 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위 집단 및 하위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에서 낮은 학업 소진 정도와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 특성들 중에서 학업 소진 정도와 자존감은 학업성취도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추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들이 시행된다면 학업성취도와 생활 양식 및 심리 특성들과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Hong JS. Competency-based Korean Medicin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tructuring : Strengthening Scientific Foundations and Professionalism. Iksan:Wonkwang Graduate School. 2018:26.
2. Oh CK, Choi HY. The Influence of Test Anxiety on Academic Achieve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Failure Tolerance. Korean J of Youth Studies. 2017;24(10):483-511.
3. Yoon MH. The Effects of Test Anxiet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edicine Students. Seoul: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2019;1-79.

4. Guthrie EA, Black D, Bagalkote H, Shaw C, Campbell M, Creed F.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in medical students: a five-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998;91:237-43.
5. Noh OJ, Jeong IS, Jeong CH, Jeong SW.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Medical Students' School Periods.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2017;23(3):214-21.
6. Lee HI.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8;22(1):97-107.
7. Smith CS, Reilly C, Midkiff K. Evaluation of three circadian rhythm questionnaires with suggestions for an improved measure of morningness. *J Appl Psychol*. 1989;74:728-38.
8. Yoon JS, Shin SM, Kook SH, Lee HY. A preliminary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 (KiCS) to measure morningness: eveningnes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7;36:122-34.
9. Hoddes E, Zarcone V, Smythe H, Phillips R, Dement WC. Qualification of sleepiness: a new approach. *Psychophysiology*. 1973;10:431-6.
10. Saunderson JB, Aasland OG, Amundsen A, Grant M.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problems among primary health care patients: WHO collaborative project on early detection of persons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 *Addiction*. 1993;88:349-62.
11. Kim DI, Jeong YJ, Lee JY, Kim MC, Lee YH, Kang EB, Keum CM, Nam JE.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Self-report. *Korea J of Counseling*. 2012;13(2):629-44.
12. Benson J, El-Zahhar N. Further re-estimation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994;1(3):203-21.
13. Cho Y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Test Anxiety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2011;11(1):99-109.
14. Schaufeli WB, Martinez MI,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 a cross national study, MBI-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5):464-81.
15. Shin HJ, Puig A, Lee JY, Lee JH, Lee SM.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011;12(4):633-9.
16. Jang SJ. Standardization of collec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statistics data.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Seoul. 2000:92-143.
17. Cohen S, Williamson G.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Claremont Symposium on Applied Social Psychology*. CA:Sage. 1988:31-67.
18. Lee JE.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Suwon: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5:37-9.
19.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0. Lee MK, Lee YH, Park SH, Son CH, Jeong YJ, Hong SG.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1-Korean Version (K-BDI).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1995;4(1):77-95.
21. Jeon KK, Lee MK.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2;11(1):65-76.
22. Spielberger C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2.
23. Kim J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between sociality : focusing on Spielberger's STAI*. Seoul: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78:1-81.
24. Fenning BE, May LN.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n A : examining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reer planning.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013;16(4): 635-50.
25. Balduf M. Under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 of Advanced Academics*. 2009;20(2):274-94.
26. Tovar E, Simon MA. Academic Probation as a Dangerous Opportunity: Factors Influencing Diverse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ty College J of Research and Practice*. 2006;30(7):547-64.
27. Hyder O, Mirghani HO. The effect of chronotype (morningness/eveningness) on medica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udan. *Journal of Taibah University Medical Sciences*. 2017;12(6):512-6.
28. Rodrigues RN, Viegas CA, Abreu E Silva AA, Tavares P. Daytime sleepines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Arq Neuropsiquiatr*. 2002;60(1):6-11.
29. Walid EA, Christiane S, Claire M. Is Alcohol Consumption Associated with Poor Academic Achievement in University Students?. *Int J Prev Med*. 2013; 4(10):1175-88.
30. Han S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Addiction, Learning-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05;15(12):987-1003.
31. Gómez HP, Pérez VC, Parra PP, Ortiz ML, Matus BO, McColl CP, Torres AG, Meyer KA. Academic achievement, engagement and burnout among first year medical students. *Revista Medica de Chile*. 2015;143(7):930-7.
32. Joo GY, Choi YS.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 7300-9.
33. Ross R, Zeller R, Srisaeng P, Yimmee S, Somched S, Sawatphanit W. Depression, stress,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Int J Nurs Educ Scholarsh*. 2005;25:124-34.